

행복한 삶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번 호는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화 작업으로 꾸몄다. 지난해 봄과 가을, 한국언론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토론과 언론학 전공자에게 열어놓은 편집회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이론』 5권 1호의 특집 주제를 잡았었다. 민영 편집위원의 주도 하에 연구논문을 모았고, 정성껏 심사했다. 이 과정에 탈락한 논문이 있다. 또 청탁을 받고서도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한 분도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 ‘학해무변(學海無邊)’이라 했다. 이 분들의 연구가 완성돼 학술지에서 빛나기를 바란다.

학자라면 누구나 박사학위를 받고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가 된 후에는 익명에 의한 논문심사를 받기가 꺼려진다. 베일에 가려졌다 하지만 누가 심사하고 누가 썼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동료나 후배학자에게 어떤 수모를 당할지 겁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에 대한 현실 점검과 함께 연구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가. 자연스럽게 심사과정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처음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누구나 “어떤 무식한 작자가 이따위로 심사를 했어”라는 반응을 보인다. 부정적인 평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난 후, 논문수정을 위해 ‘게재불가’ 심사평을 다시 읽어보면 “아! 그래도 내가 못 본 것을 보았네”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 후

각고의 노력 끝에 학술지 게재가 확정되면, 처음 받은 심사평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런 심사일수록 “왜 게재불가로 평가했는지”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 호는 다섯 편의 논문으로 꾸몄다. 이 논문들은 공교롭게도 ‘행복한 삶’이란 키워드로 연결된다. 첫 번째는 윤태일의 “신명 커뮤니케이션 서설”이다. 그는 첫째 아들 이름을 신명이라 지었을 만큼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화에 목말라 했다. 그는 본문에서 신명컴의 이론화를 위해 한국 매체 서사학(narratology)의 개발을 포함한 여섯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신명컴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우리 언론학계도 독일의 ‘침묵의 나선’이나 일본의 ‘정보화 사회’와 같은 이론적 분석 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김영주의 조선시대 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이 연구를 읽으면서 언론의 유사개념인 간쟁이 중국의 오간(五諫)을 포함해 다양한 하부 차원의 개념으로 나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공자는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논쟁하는 풍경을 최상의 간쟁으로 여겼다고 한다. 반면에 조선시대 사대부는 “목숨을 걸고 임금과 논쟁”하는 직간이나 극간(극론)과 같은 고위험도 간쟁형식을 취했다. 그 래서인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다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사화가 많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영주의 연구는 한국적 간쟁 화법을 역사적으로 분류해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나아가 대통령학이나 추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규명하는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 연구에 까지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참조: Burns, 1978; 한국리더십연구회, 2000).

세 번째는 김주환과 그 제자들의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행복은 우리를 통하게 한다”이다. 이 연구 역시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윤태일의 신명이나 김영주의 간쟁 연구와 비슷하게

김주환과 그의 제자도 공자의 가르침인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로 시작해 행복한 삶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들은 파일럿(pilot) 실험을 통해 연세대 학생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여길 때보다 행복하게 느낄 때, 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 실험에서 행복이란 긍정적 정서가 은연중에 전파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윤태일의 ‘홍겨운 신이나 흥’으로 묘사되는 순수 우리말의 신명이란 긍정적 정서가 집단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가설과 맥이 닿아 있다. 윤태일은 논어의 어구를 인용해 “이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고 기술했다. 김주환과 그의 제자도 “행복해지면 설득 당하고, 설득 당하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긍정적 정서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세 연구가 모두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룬 신명이나 간쟁, 행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준웅은 1990년 이후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뉴스 프레임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그가 설명한 ‘두 개의 빨’ 사이의 연결고리는 앞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이론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위버(Weaver, 2007)가 분석했듯이, 뉴스 프레임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다수가 SSCI 학술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는 『*Communication Abstracts*』에 165건이나 게재될 정도로 각광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도 석사나 박사학위 연구의 단골 분석 틀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언론사가 서로 상반된 뉴스 틀에 의해 게이트키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의 지속적인 발견이 도대체 커뮤니케이션 이론화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준웅은 반다이크의 ‘상황 모형

(situation model)’이란 개념에 주목해 뉴스 틀 짓기의 두 개 뿔을 동시에 잡아볼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논지는 한국 미디어가 즐겨 사용하는 서사학 모형을 개발해보자는 윤태일의 제안과 일면 상통한다.

이영미와 정용찬은 한국의 케이블 정책이 시장구조와 성과에 미친 영향을 구조-행위-성과라는 SCP 분석 틀로 평가했다. 정책연구의 문외한으로 이 연구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상황에서 이런 실증적 분석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다. 그동안 방송정책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왔나. 하지만 결론은 늘 비슷한 모양새였다.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서로 상충되지만 유사한 논리로 자기 집단에게 유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작고하신 김창열 방송위원회 위원장께서 오죽했으면 수많은 정책연구나 토론회 결과에 상관없이 “방송정책은 최고 통신권자의 결심사항이다”라고 언급했을까. 이영미와 정용찬의 연구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주요 방송정책의 하나였던 정부의 케이블 정책에 대한 공과를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커트 루인(Lewin, 1951)의 명언처럼, 방송현장을 설명하지 못하다면 방송이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화 작업을 위해 금년 12월 15일에 발간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5권 2호는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론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대한 특집으로 꾸미게 된다(이번 호 7쪽, 논문공모 참조).

이번 호의 원로교수와의 대담은 “김민남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삶과 학문”을 다루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 코너는 비교적 평탄하게 교수생활을 했으며,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수도권 대학의 학자와의 좌담으로 꾸며졌다. 김민남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까지 소개되신 분들과 다소 다르다. 좌담을 위해 선생님 댁을 방문한 오창호에 따르면, 김민남 교수는 “건강이 매우 나빠졌으며 이면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선생께선 젊었을 때 위스콘신대의 대디 블레이어처럼 언론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수고했으며, 월버 슈람처럼 지방에선 거의 최초로 부산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창설해 제도화했다(참조: Rogers & Chaffee, 1994). 정년을 10년 남짓 앞두고는 미주리대 교환교수를 다녀온 후 캔사스주 위치타시의 메리트(Merritt, 1995)처럼 한국 지역 언론을 위해 공공저널리즘의 도입과 이론화 작업에 열심이었다. 김민남 교수께서 왜 정년을 앞두고 시민 혹은 공공저널리즘의 현지화에 그렇게 열정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이번 호에서 찾을 수 있다. 오창호는 병색이 완연한 선생님을 뵙고 김시습을 떠올렸다고 한다. 오창호의 글을 읽다보면, 김시습처럼 “병 같지 않은 병이 있을지라도(有不病之癭) 고칠 수 없는 그 낙을 즐기자(而樂不改之樂)”라는 조선조 딸각발이 삶을 실천하는 선생님의 어진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김민남 교수께서 건강을 되찾아 우리 사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한다. 신명만 나기만 한다면 한국의 사회과학도는 60세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재철
편집위원장

참고문헌

- Burns, J.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한국리더십연구회 역 (2000). 『리더십 강의』.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생각의 나무.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 Row.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Why telling the news is not enough*. Hillsdale, NJ: Erlbaum.
- Rogers, E. M., & Chaffee, S. H. (1994).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from “Daddy” Bleyer to Wilbur Schramm: A pamimpsest. *Journalism Monographs*, 148.
- Weaver, D. (2007). Thoughts on agenda-setting, framing, and pri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42 ~ 147.